

# 전기계 및 회원사 동정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이관섭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2차관에는 문재도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산업부 1,2차관 등 차관급 1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산업부 이관섭 1차관



산업부 문재도 2차관

이관섭 신임 산업부 1차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하버드대에서 행정학석사를 나왔다. 1984년 행정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경영지원단장과 대통령비서실장 보좌관, 산업경제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도 신임 산업부 2차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주체네바국제연합 사무처 공사참사관, 통상협력정책관, 자원개발원전정책관, 산업자원협력실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이관섭 1차관은 산업·에너지 관련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업무시야가 넓고 협상력과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점을, 문재도 2차관은 산업·자원·통상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순발력과 교섭력이 뛰어나고 리더십도 갖춘 점을 발탁 이유로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으로 6개 에너지 新사업을 발굴하고 2017년 2조800억 원의 시장과 1만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을 수립,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지난달 1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했다.

6개 에너지 신사업은 △전력 수요관리사업(네가와트 발전) △에너지관리 통합 서비스 사업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태양광 렌탈 사업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 사업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이다.

청와대,  
산업부 이관섭 1차관,  
문재도 2차관 임명

산업부, 6개 에너지  
新사업 발굴...  
1만개 일자리 창출키로

산업부는 새로운 사업모델에 맞춘 조치사항 뿐 아니라, 미래 에너지산업의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강구키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수요관리형 요금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해 에너지 시장규칙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수출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외 수출 사업의 국내 배출권 상쇄대상 인정, 국제기구의 지원사업 연계, 무역보험 보증 등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네가와트,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등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한전 본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 본격 시행

올 1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토지의 가치하락 등을 보전해주는 재산적 보상이 실시된다. 송주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은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 기준 765kV는 최대 33m, 345kV는 13m까지다. 이와 함께 송전선로가 신규로 건설됨에 따라 인근 주택을 팔기를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연간 지원금은 송전선로 전체 회선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감안해 산정하게 되는데 매년 약 1,26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범위

구 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변전소 주변지역	
	765kV	345kV	765kV	345kV
① 재산적 보상	33m	13m	-	-
② 주택매수	180m	60m	-	-
③ 지역지원사업	1000m	700m	850m	600m

\* 송전선로는 양측 최외선 기준, 옥외변전소는 울타리 경계 기준

삼성동 한전 본사 부지가 최고가 일반경쟁으로 올해 안에 매각된다. 한전은 본사 이전시기 도래 및 정부정책인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감축을 위해 삼성동 본사 부지를 적법성, 수익성, 투명성 및 공공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일반매각 방안으로 결정하고 지난달 1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정부방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입지인 본사 부지의 미래가치를 토지가격에 반영, 일반경쟁입찰을 시행함으로써 당사가 당면한 부채감축 효과 제고 및 헐값매각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전은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개인, 법인, 공동입찰 등 제한없이 허용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입찰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곧바로 경쟁입찰을 통해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8월말 경 매각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당초 매각 시한인

한전, 삼성동 본사 부지

올해 안에 매각 추진



한전, 몽골 제2 발전소  
개발 '독점 협의권' 확보

2015년 11월을 2014년 이내로 1년여 앞당겨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전은 본사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오는 11월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전은 지난달 21일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ICT설비를 나주 통합 ICT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착수식을 갖고 이전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한전은 앞으로 공공기관 최대 물량인 1,200여대의 초정밀 ICT 시스템 설비들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단계별로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 이전하게 된다. 9월부터 10월 말까지 주요설비에 대한 이전을 완료하고, 11월에는 완벽한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달 24일 몽골에서 몽골 에너지부(The Ministry of Energy)와 제2열병합 발전소(200MW) 건설과 운영에 대해 한전에 독점 협의권을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올 4월 한전-몽골 에너지부 간 몽골 전력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한 MOU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 MOU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한전은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제2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진출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몽골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몽골은 울란바토르 지역의 전력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전은 세계 6위의 민자발전사업자로서 UAE 원전 등 세계 20개국에서 37개의 원자력, 발전, 송배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중에 있다.

한전, 베트남 민자발전  
건설·운영사업 승인 획득

한전은 지난달 21일 베트남 롱안성에서 인민위원회(The People's Committee of Long An Province)와 Caric-Hong Linh 공단에 1,200MW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베트남 롱안성 인민위원회로부터 협력 약정서를 발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롱안성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협력 약정서는 한전이 제의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에 동의하며, 본 사업개발을 위해 롱안성에 관련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전 박정근 부사장은 “한전은 작년 응이손 2 석탄화력(1,200MW) 사업수주에 이어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롱안성에 투자를 희망하며, 이번 협력 약정서 발급은 한전이 베트남 전력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한국-베트남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가 투자자에게 협력약정서를 발급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약속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여러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은 단시간 내에 롱안성의 사업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사업추진에 가속이 붙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남동발전(사장 허엽)은 지난달 10일 유정복 인천시장, 조운길 응진군수, 군의원, 지역주민 및 협력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흥면 영흥화력발전본부에서 영흥화력 5호기 준공 및 6호기 발전개시 기념행사를 열고 5호기 상업발전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6호기는 출력별 상태를 종합 점검하는 발전개시를 시작하게 됐다.

영흥화력 5, 6호기는 총사업비 2조5,300억 원, 건설기간 4년, 고용인원 약 200만 명이 투입됐으며 지속적인 혁신활동과 건설공법, 공정개선 등으로 선행호기 대비 6개월의 공기단축을 달성했다. 5호기는 지난 1월 발전개시를 시작한 이래 6개월 만에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됐다.

영흥화력은 수도권에 위치한 유일의 대용량 유연탄발전소로 수도권의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2004년 11월 1,2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현재 5호기 4,210MW 설비로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25%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영흥 5호기는 세계 최저 수준의 환경물질 배출(법적기준 SOx

남동발전, 영흥5호기 준공  
및 6호기 발전개시

25ppm, NOx 15ppm)로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LNG 가격의 약 1/3 수준인 유연탄을 발전연료로 사용하면서 원가 절감을 통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저렴한 전기요금에 일조하고 있다.



동서발전,  
울산 시대 개막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장주옥)은 지난달 21일 울산 우정혁신도시 내 본사 강당에서 ‘본사 이전 및 신사옥 입주 기념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동서발전은 6월 16일 본사 이전을 완료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동서발전 장주옥 사장은 “동북아 경제허브이자 창조도시인 울산에서 동서발전이 비전 달성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울산광역시와 함께 세계로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공기업 최초로 ‘스마트오피스’를 도입, 부서 간은 물론 개인 간 칸막이를 모두 없애고 유연좌석제(팀장 포함)를 시행해 협업과 소통이 활발한 창의적 사무공간을 조성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달 29일 950MW급 대용량 발전소인 울산4복합화력의



신뢰도 운전 및 법정검사를 마치고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울산4복합화력은 원자력 발전 1개 호기(1,000MW)에 맞먹는 대용량 복합화력으로, 지난달 25일 기준 예비전력 8,080MW의 약 11%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올해 하계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울산4복합화력은 기존 복합화력 발전소 대비 발전효율이 약 1.8%p 더 높은 고효율 발전기를 도입, 연료비 절감을 통해 국가적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지역 전력공급을 책임지게 될 417MW 규모의 천연가스발전소가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상호)은 지난달 21일 안동천연가스 발전소(이하 ‘안동발전소’) 소내 광장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김광림 국회의원 등 주요내빈과 지역주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 준공행사를 개최했다.

2012년 공사에 들어가 24개월(국내 최단기)만에 준공된 안동발전소는 액화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연간 2,340GWh(연 80% 이상 이용 예상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천연가스발전소다. 이는 안동시 전체 연간 전력사용량의 4배 규모에 달한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지멘스(Siemens)의 H클래스 가스터빈을 장착한 안동 천연가스발전소는 국내 운영 중인 복합화력 중 가장 높은 54.97%의 발전 효율을 자랑한다. 또 고효율 설비 반영으로 10여분 만에 정격출력에 도달 가능해 최대 출력까지 약 30분이 소요되는 기존 복합발전설비 대비 부하 추종성이 우수하다. 또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냉각탑과 SCR 탈질설비 등 최신 친환경설비를 도입하여 백무 현상과 질소산화물 발생을 최소화했다.



남부발전, 417MW 규모  
안동천연가스발전소  
종합준공

중부발전, 공공기관 최초  
ISO27001:2013  
국제인증 획득

한국중부발전(주)(사장 최평락)은 지난달 22일 서울 대치동 본사 회의실에서 '국제표준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SO27001:2013)'을 공공기관 최초로 인증 받았다. ISO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표준으로 정보보안 정책, 공급자관계, 암호통제 등 14개 영역 114개 항목에 대해 국제 심사원의 검증을 통해 주어지는 정보보호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인증이다.

중부발전이 취득한 국제표준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ISO27001:2013'은 변화된 정보보안 정책을 신속히 반영해 보안강화를 추진하고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함에 의미가 있다. 중부발전은 'ISO27001:2013' 체계를 기반으로 사이버위협에 대해 지속적인 보안강화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며 글로벌 수준의 국가 기반시설 정보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전KPS,  
동반성장 협약식 개최

한전KPS(주)(사장 최외근)가 중소기업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를 다짐하고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추진을 통한 상호 경쟁력 제고를






약속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한전KPS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분당구에 위치한 본사 1층 대강당에서 최외근 사장을 비롯한 한전KPS 관계자들과 에이스기전(주) 등 2013년도 경상하도급 공사 수행업체 34개사 기업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한전KPS-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 앞서 최외근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한전KPS는 협력사를 위한 품질보증능력 향상 지원, 해외사업 동반진출, 중소기업 자금대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에너지(사장 황은연)가 버려지는 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고효율 부생가스복합발전소를 포항에 준공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달 18일 포스코에너지 황은연 사장, 포스코 이정식 포항제철소장, 설비공급사, 시공사 관련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부생가스복합발전소 1, 2호기의 종합준공식을 개최했다.

포스코에너지는 포항시 남구 4만9,245㎡의 부지에 사업비 5,885억 원을 투입해 착공 30개월만에 발전소를 준공했다. 이 발전소는 가스터빈, 스팀터빈, 발전기, 배열회수보일러, 연료공급설비, 해수 취·배수구설비, 순수 및 폐수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생가스를 연료로 활용해 시간당 290MW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발전소는 제철소의 고로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인 BFG(Blast Furnace Gas)와 차세대 철강생산기술인 파이넥스설비에서 발생하는 FOG(Finex Off Gas)에 COG(Coke Oven Gas)를 혼합하고, 이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해 한전으로 송출하게 된다. 



포스코에너지,  
친환경·고효율  
부생가스복합발전소  
종합 준공